

3野 총력전... 영광군수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

오늘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초박빙 구도에 높은 투표율 예고
민주당 '장남론'·혁신당 '효도론'·진보당 '이웃론' 결과 예측 불허
이재명·한동훈 대표 체제 첫 맞대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촉각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곡성 등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며 막판 유권자 마음 잡기에 주력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각 당 지도부의 향후 진로 및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호남의 '집권여당'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은 영광·곡성 중 한 곳이라도 혁신당이나 진보당에 '뒷발'을 내줄 경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한 선명성을 요구해온 호남 민심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수 세력들을 중심으로 끊이질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불안한 리더십에 대한 호남 민심의 경고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광에서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박빙 구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집안 장남이 잘돼야 한다" (정청래 의원)는 장남론을 꺼내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광·곡성을 여러 차례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박지원·정청래·김민석·추미애·한준호·이언주 등 중랑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한 지원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영광군 흥농읍 119안전센터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총집결해 실시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영광읍·대마면 등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혁신당과 진보당 입장에서는 2곳의 군수 선거 중 한 곳에서 승리할 경우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풀뿌리 정치를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지방선거 등을 통한 세불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총

력 유세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점을 들어 민주당의 유권인 점을 강조하며 "자식 한 명만 키우면 되겠다, 그 래야 효도 더 받지 않겠냐" (조국 의원)는 '효도론'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유세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차량과 군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막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진보당에서는 '진짜 동네이웃론'을 내걸고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진보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석하 후보는 15분 단위로 쪼개 지역민들과 만나는 유세를 통해 '마지막 한 표가 부족하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구별로 이같은 정당별 치열한 접전이 이뤄지다보니 선거 하루 전까지도 선거구별로 투표 때 유권자들을 버스소 실어나르는 '버스떼기' 행위를 비롯, 금품·식사 제공 등의 의혹도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무소속 오기원 후보도 이날 영광군 전역을 돌면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유권자들과 만났다.

곡성에서도 민주당 조상래 후보,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조국혁신당 박용우 후보, 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마지막 집중 유세를 돌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곡성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날 국민의힘도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보궐선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위쪽),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 /연합뉴스

합참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육로 끊고 요새화 공사하려는 듯
외신 "남한과의 단절의지 분명히"

북한이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15일 폭파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정오경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km 철도다. 예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km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

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 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돼 된다"고 발표했다.

외신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진했다.

특히 외신은 이들 도로가 남북한 '데탕트(긴장 완화) 시대'의 상징물이었다고 전하며 이날 폭파는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AP 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띄웠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남북 사이 적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도로 폭파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가요계에도 노벨문학상 '한강 열풍'	▶2면
채소 가격 폭등에 달라진 세태	▶6면
KIA, 합평서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	▶18면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쫓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기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열정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혼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혼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작정 무의미해 보이는 공간은 책에서
기어코 생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색감처럼 반드 기억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참을 수 있으려고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공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매일의 현재가 기쁘게 사는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알겠지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게
좋은 거라면 기쁘게
우연이나 우연치 않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